



나라, 사람

배선호

선교의 역사로 볼 때 한국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선교역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국은 복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선교사를 타국에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1860년대 조선은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후 나라의 주권을 잃은 일제 강점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문화 권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조선인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게 많이 낯선 시절인 1913년, 조선의 교회는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목사님을 중국의 산둥지방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2차로 방효원목사님을 파송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방효원 목사님의 아들로 1937년에 아버지 의 뒤를 이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957년까지 계시다가 추방을 당하셔서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21년을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고 2014년 10월 10일 103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방지일 목사님께서 선교사 신분으로 1957년까지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로서는 버틸 수 없는 시간을 견디며 중국에 남아 사역을 한 것입니다. 1949년에 중국대륙이 공산화 되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마지막 서양 선교사가 추방됩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모든 서양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나서 5년을 더 중국에 남아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1950-53년까지 3년간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한국은 중국이 썼던 인해 전술로 많은 고전을 했습니다. 인해전술이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를 자국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군의 사상자가 먼저 생각나겠지만 중국의 관점으로 본다면 전사한

수많은 자국 군인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한국은 적국이고 자국의 군인들을 죽인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방지일 목사님은 1957년까지 중국에 남아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방지일 목사님께서 아무리 조심해서 사역을 이어 나갔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성도들이 숨겨주고 도와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올 수 있는 모든 후원이 끊긴 상황에서 중국성도들이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방지일 목사님은 한시라도 중국에 더 머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시절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갈 때 조차, 한국의 선교사를 숨겨주고 도와 주었던 중국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실제 방지일 목사님을 뵈는 적이 있습니다. 2001년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구정)에 한국의 모 교회에서 재한 중국인들을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어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자 수많은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방지일 목사님의 말투에 1950년대 중국의 산둥 사투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할아버지에게서나 들을 법한 구수한 사투리에 그렇게 중국인들은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한 국가 간의 정서와 감정도 급격하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마치 요나가 그토록 다시스로 가기 싫어 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국제정세와 정치적, 경제적 실리 속에 좋아 하는 나라, 싫어하는 나라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아집 속에 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수준으로 묶어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주신 특권은 국제적 상황을 넘어 영혼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눈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국가에 대해 실망할 때 더욱더 그 나라의 영혼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를 볼 때 국가적인 위상과 재력, 문화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했던 선교들은 태반이 실패를 했습니다. 오직 종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선교지의 영혼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미디어의 홍수, 사람들의

평가속에 자칫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이 여겨 버리기 쉬운 이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